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맥락 효과에 관한 인지·화용론적 연구

이현호
서강대학교

A Cognitive Pragmatic Approach to Contextual Effects
in Modern Korean Poetry

Hyonho Lee
So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현대시 텍스트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시적 효과를 담화·텍스트 언어학 및 인지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담화·텍스트 언어학은 텍스트의 언어 자료 자체보다는 이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인지 과정에 주목하는 인지학의 한 분야이며, 적합성 원리로 요약되는 인지적 화용론은 텍스트 언어학에서 규명하는 바 여러 인지적 조작 절차들의 심리학적 근거가 된다. 많은 인지적 책략 및 조작 절차들이 집약되어 있는 한국 현대시 텍스트를 인지·화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이제까지 모호하게 개진되어 오던 많은 시적 효과가 텍스트 언어학 및 인지적 화용론의 분석 장치들에 의해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정보성의 격상 및 격하, 각별한 결속구조의 사용 및 그 수용 과정, 작가의 상황점검과 상황관리 과정에 의한 전국적 인지 패턴의 활성화 및 수정 등의 인지적 절차를 통해서 독자의 맥락이 수정, 확장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I. 담화·텍스트 언어학과 인지적 화용론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and Dressler 1981)의 담화·텍스트 언어학은 일곱 가지 텍스트성의 기준, 즉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황성(situationa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인간의 담화·텍스트적 통화 행위를 기술, 설명하는 언어과학이며[1], 스퍼버와 윌슨(Sperber and Wilson 1986)의 인지적 화용론은 적합성 원리(the Principle of Relevance)를 통해 인간의 직시-추론적(ostensive-inferential) 통화 행위를 설명하며, 약성 함축의미(weak implicatures)에 의해서 담화 수용자의 인지적 맥락에 달성되는 효과 또는 시적 효과를 기술

하는 이론의 틀이다.[2]1) 이들은 모두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담화·텍스트적 통화 행위를 조명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화용론(pragmatics)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들 두 이론의 틀은 인간의 인지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공통 분모는 주어진 텍스트 자료, 즉 자극 단서를 텍스트 수용자가 처리하는 심리적 과정 자체에서 도출되는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s)에 있다. 담화 참여자가 시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얻는 시적 효과는 그 시 텍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자료가 참여자의 인지에 미치는 맥락 효과라고 할 수 있다.2) 본고에서는 담화·텍스트 언어학 및 인지적 화용론이 함께 관여하는 바 담화·텍스트의 맥락 효과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시의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시 텍스트를 보다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탐색해보고, 담화 해석에 있어서 담화·텍스트 언어학과 인지적 화용론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담화·텍스트 조작 절차와 인지 기정 간의 관계

담화·텍스트 언어학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인간 의사소통 행위가 다양한 인지적 조작 절차(operational procedures)에 의해서 수행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절차적 접근 방식(procedural approach)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생산하는 텍스트에 개재하는 이들 조작 절차 및 인지적 특성으로는, 처리 심도(processing depth)와 용이도(processing ease), 문제-해결(problem-solving), 결속구조적 장치(cohesive devices), 상호 타협 현상(trade-off phenomena), 활성화(activation) 및 확대 활성화(spreading activation), 전국적 인지 패턴(global patterns), 상황점검(situation monitoring) 및 관리(situation management), 정보성의 제 단계(orders of informativity), 동기 탐색(motivation search), 중간조정(mediation) 과정 등이 포함된다.3) 이들 인지적 조작 및 절차들이 시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기본적 요건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들이 모두 인지적 처리 과정들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스퍼버와 윌슨이 제안한 적합성 원리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실제로 위에 열거한 인지 과정 및 절차들이 적합성 원리와 관계 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타당한 상정이다. 예를 들어, 정보성 단계의 격상(upgrading)이나 격하(downgrading) 과정에는 맥락의 확장(extension of context) 과정이 포함된다. 일반 문제-해결 과정에는

1) 이들 이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Beaugrande & Dressler 1981 및 Sperber & Wilson 1986 참조.

2) 물론 맥락 효과가 곧 시적 효과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맥락 효과가 시적 효과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필요 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3) 이러한 인지적 조작 절차들의 완전한 목록을 보려면 Beaugrande and Dressler 1981의 v-vii 참조. 이들 조작 절차들은 이 문헌의 3장부터 9장까지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적합성의 탐색 과정이 개재하며, 효율성(efficiency)과 유효성(effectiveness) 간의 상호 타협 현상은 적합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계 있다. 상황점검의 결과를 의사소통함으로써 화자는 청자의 맥락을 수정(modification)시키고 이로 인해 청자에게는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s)가 발생한다. 상황관리에 의해서는 일련의 상정내용 (I)를 상호 현시(mutually manifest)하려는 화자의 의사소통적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가 전달된다. 다양한 결속구조적 장치(cohesive devices)로부터 약성 함축의미들(weak implicatures)이 생기며 이들로 인해 시적 효과(poetic effects)가 발생한다. 그런가 하면 텍스트 인유(text allusion)에 의해서는 텍스트 수용자의 맥락 정보가 강화(strengthening), 기각(abandonment)되거나 맥락적 함축(contextual implication)이 생겨난다.

텍스트 언어학과 인지적 화용론이 상호 협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이론의 틀이라는 증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 가운데서 네 가지만을 자세히 논의함으로써 이들 두 이론의 틀이 설명력을 지닌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언젠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인지적 화용론은 텍스트 언어학이 규명해 놓은 인지적 조작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III. 정보성의 격상과 맥락의 확장

텍스트상에 나타난 발화체들은 그 정보성의 단계에 따라 세 범주로 구분된다. 즉, 제 1차 정보성 발화체는 자명한(trivial) 반면에 흥미롭지 않다. 제 3차 정보성 발화체는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1차나 2차 정보성 발화체에 비해서 더 많은 맥락 효과를 낼 수 있다. 제 2차 정보성을 지니는 발화는 정보성의 지속대에서 중간 단계, 즉 기준 단계를 구성한다. 예컨대 일상 대화의 발화체들은 보통 2차 정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문학 텍스트는 어떠한가? 특히 시 텍스트는 어떠한가? 시 텍스트는 보통 2차나 3차 정보성 발화체로 구성되어 있다.⁴⁾ 만일 시 텍스트 자료의 일부분이 지나치게 자명한 것이라면 독자는 이들의 정보성 단계를 격상시킴으로써 그 텍스트 자료가 전달하는 함축의미들을 계산하게 마련이다. 반면에 문제-해결을 요하는(problematic) 자료를 제시받게 되면, 수용자는 격하 과정을 활성화시켜 그 자료의 실현된 바 의미를 찾고자 한다.

텍스트 수용자는 어떻게 정보성의 격상 및 격하 과정을 수행하는가? 인지적 화용론의 관점에서는, 격상 및 격하 과정은 수용자의 맥락을 확장함으로써 수행된다. 다음 텍스트를 살펴보자.

4) 정보성의 단계는 텍스트의 언어적 자료의 내재적인 특질이 아니라 격상 및 격하 과정을 수행하는 담화 참여자들에 의해 제어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욱이 사람들은 텍스트 유형마다 독특한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특히 시 텍스트를 수용할 때, 수용자는 자신의 인지 공간에서 시적 효과를 처리하는 데 적절한 특정 인지 과정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주어진 시 텍스트 전반의 정보성 단계가 시 텍스트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1)

[1] 박꽃이 하얗게 필 동안

[2] 밤은 세 걸음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

[3] 벌떼 같은 사람은 잠들고

[4] 침을 감춘 채

[5] 뜯소문도 잠 들고

[6] 담비들은 제 집으로 돌아와 있다

[7] 박꽃이 핀다

[8]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

이 텍스트는 신대철의 『박꽃』이다. 마지막 행인 [8]은 자명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문제-해결을 요한다. 텍스트 수용자는 [8]이 전달하는 상정내용(assumptions)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⁵⁾ [8]의 실현적 의미 또는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용자는 맥락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번째 방법은 [1]-[7]에 표현된 상정내용들을 맥락에 부가시키는 것이다.⁶⁾ 그러나 이들 상정내용을 부가시켜도 수용자는 [8]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7]이 표현하는 상정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즉, 박꽃은 한밤중에 핀다. 벌떼와도 같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사람들이 지어내는 뜯소문도 침을 감춘 채 잠들어 있다. 담비들은 돌아와 제 집에 있다. 박꽃이 핀다. 이들은 [1]-[7]의 명시적미들(explicatures)인데, 이러한 상정내용들을 수용자의 맥락에 부가시켜도 [8]에 의해 표현된 바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는 상정내용의 자명성(triviality)을 해석해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는 맥락을 다시 확장시키게 되는데, 이 두번째 방법은 [1]-[7]에 표현된 각 개념들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맥락에 부가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수용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게 된다. 즉, 사람들에게는 벌떼같은 특성이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뜯소문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찌른다.⁷⁾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한밤중에는 잠든다. 낮 시간동안 방황하던 짐승들도 돌아와 자기 집에 머문다. 박꽃은 바로 이런 순간, 즉 사람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고, 그들의 뜯소문이 사람들을 찌르기를 멈추었고, 방황하던 짐승들이 제 집을 찾아와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핀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박꽃이 피고 있다.

5) 다시 말하면, 이 [8]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6) 이는 인지적 화용론에서 발전시킨 방법이다. 맥락의 확장 방법에 관해서는 Sperber & Wilson 1986의 제 3장 참조.

7) 이 추론은 확대활성화(spreading activation) 과정을 통해서, 벌에게 침이 있다는 백과사전적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8]에 대한 정보성의 격상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 박꽃이 핀다는 상황 증거(situational evidence)는 만물이 제 자리에 있고, 각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즉, 다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뜯소문으로 오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방황하던 모든 것들이 본래의 위치나 지위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 과정을 거친 수용자는 마침내 [8]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의의의 연속성(continuity of senses)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박꽃이 피는 한밤중의 시간에는 혼란스러운 것이 전혀 없고 만물이 제 자리에 있으므로, 물소리가 이제서야 물소리 그대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보그란데와 드레슬러의 텍스트 언어학적 이론의 틀에서는 정보성이 격상 또는 격하된다 고만 언급했을 뿐,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학적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논의 되지 않았다. 본 항에서는 텍스트 수용자의 맥락의 확장 과정을 통해서 정보성 단계의 격상 절차가 수행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텍스트 수용자는 [1]-[7]에서 표현된 상정내용 또는 개념들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맥락에 부가시킴으로써, [8]의 정보성 단계를 1차에서 2차로 격상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정보성의 격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격상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가? 아니면 각별한 다른 과정이 존재할 것인가? 원리적으로 말해서, 담화 참여자가 격상 과정과 구별되는 각별한 격하 과정을 따로 지닌다고 상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두 과정은 모두 수용자가 적절한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적합성을 띠는 해석내용을 성공적으로 탐색해내기 위해 활성화시키는 처리 절차이기 때문이다.

IV. 결속구조와 약성 함축의미

보그란데와 드레슬러는, 회기(recurrence), 대용형(pro-forms), 생략(ellipsis), 기능적 문장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과 같은 결속구조적 장치들(cohesive devices)이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환경(cognitive environment)에 일정한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s)를 일으킨다고 논의한다. 결속구조적 장치들은 텍스트의 표층 형상, 즉 문체(style)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이를 인지적 화용론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결속구조적 장치에 의해 발생된 맥락 효과란 텍스트의 표층 문체적 특질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약성 함축의미들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시인, 즉 시 텍스트의 생산자는 특정한 문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령 특정한 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명사구 대신에 대용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들 대용형 및 그 외의 결속구조적 장치들은 어떻게 해서 독자의 마음 속에 맥락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 인지적 화용론은 이 의문에 대답을 제공한다. 즉, 결속구조적 장치들이 사용됨으로써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환경에는 많은 약성 함축의미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들 약성 함축의미들을 계산하고 평가하는 정보 처리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는 시적 효과를 얻게 된다. 다음 텍스트를 살펴보자.

(2)

- [1] 風景이 風景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2]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3]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4] 速度가 速度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5] 拙劣과 羞恥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6]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
- [7] 救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 [8] 絶望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 텍스트는 김수영의 『절망』이다. [1]-[4]를 살펴 보면, ‘...이(가) ...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의 병행구문(parallelism)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행의 주어 자리에 나타난 낱말이 목적어 자리에 어휘적으로 완전 회기되고 있음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1]-[4]의 이러한 표층적 형상은 텍스트 수용자로 하여금 어떤 일상적, 상투적 현상들이 변화없이 단조롭게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효과를 얻게 한다. 그러나 [1]-[4]는 이 텍스트의 도입 부분일 뿐, 정작 생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언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가(은) ...을 반성하지 않는’의 병행구문을 공유하고 있는 [5]와 [8]에서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회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5]의 ‘羞恥’와 ‘拙劣’은 ‘그들 자신’으로, ‘絶望’은 ‘그 자신’으로 대용형화되었다는 점이다.

대용형은 수용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문제-해결을 요하는(problematic) 상태를 제공한다. 수용자는 주어진 대용형의 지시 대상(referent)을 찾는 인지적 과정에 착수하게 되고 그 과정 자체 및 그 과정을 통해 찾은 지시 대상으로부터 시적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절망』의 수용자는 [5]에서 ‘그들 자신’, 그리고 [8]에서 ‘그 자신’의 지시 대상을 찾기 위한 인지적 처리 절차를 활성화시키고 그 처리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용형에 주위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게끔 표층 텍스트를 구성한 것은 물론 생산자의 플랜에서 비롯된 책략이다. 생산자의 표층 텍스트 구성 책략을 대략 언급해 보면, 병행구문과 대용형의 사용을 통해서 ‘수치’와 ‘졸렬’에, 궁극적으로는 ‘절망’에 수용자의 인지적 초점을 맞추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 대용형을 처리함으로써 도출되는 맥락 효과를 좀 더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 대용형을 사용하지 않은 아래의 (2')를 원래 텍스트인 (2)와 비교해 보자.

(2')

- [1] 風景이 風景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2]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3]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4] 速度가 速度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5'] 拙劣과 羞恥가 拙劣과 羞恥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 [6] 바람은 먼 데에서 오고
- [7] 救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 [8'] 絶望은 끝까지 絶望을 반성하지 않는다

대용형을 포함하지 않은 이 텍스트는 원래의 텍스트에 비해 더욱 병행적인 표층 구조를 지닌다. 즉, [1], [2], [3], [4], [5'], [8']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각 낱말들이 목적어 자리에 어휘적 회기(lexical recurrence)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가 달성하는 바 맥락 효과 면에서는 어떠한가? 이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는 어디서 인지 과정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인가? 단지 [6]과 [7]만이 여타의 행들과 다른, 즉 비병행적 표층 구조를 지닌다. 그렇다면 수용자는 이들 두 행에 주의를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6]과 [7]은 텍스트 생산자가 의도한 바 이 시 텍스트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텍스트 생산자가 [5]와 [8]에서 '졸렬', '수치', '절망' 대신에 대용형을 사용한 것은, 이들을 여타 정보, 즉 '풍경', '곰팡', '여름', '속도' 등과 구분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졸렬', '수치', '절망' 뿐만 아니라 '풍경', '곰팡', '여름', '속도'도 자신을 반성하지 않지만, 특히 '졸렬', '수치', '절망'은 인간적 성향 또는 심적 상태를 표상하는 반면에 여타의 것들은 자연의 성향이기 때문이다.⁸⁾ 이와 같은 구별은 물론 텍스트 생산자가 [5]와 [8]에서 대용형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며, 그 결과 수용자는 자동적으로 '그'와 '그들'이라는 대용형을 처리하는 인지 과정을 활성화시키게끔 되는 것이다.⁹⁾

대용형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수용자는 자기 스스로가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약성 함축의미들(weak implicatures)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연이 항상 틀에 박힌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언제나 그들의 졸렬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 구원의 손길은 인간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지만, 인간은 끝까지 절망적인 심적 상태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¹⁰⁾

이러한 약성 함축의미들을, 대용형이 사용되지 않은 (2')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함축의미와 비교해 본다면, (2')로부터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정도의 약성 함축의미들이 도출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들 약성 함축의미들은 (2)에서 명사 대신에 사용된 대명사들을 처리하는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다. 따라서 결속구조적 장치들은 약성 함축의미들을 생겨나게

8) 시인의 직관으로는 '속도' 또한 물리적 자연의 한 성향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고 상정될 수 있다.

9) '그' 또는 '그들'의 지시 대상(referent)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내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10) 여기에 이들 약성 함축의미들을 열거한다고 해서, 『절망』이라는 시 텍스트가 반드시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대용형의 사용이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보았을 때 인간의 심적 성향과 자연의 물리적 성향을 대비시켜 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론해 나갈 때 이러한 약성 함축의미를 계산해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함으로써 시적 효과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상정된다.

V. 상황점검과 맥락 효과

인간의 담화 행위는 그 자체가, 인간이 통화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일반적인 인지적 책략들의 실현체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각별한 중간조정(mediation) 과정 없이 상황 모델을 기술하는 상황점검(situation monitoring)은 일반 문제-해결(general problem-solving)과 유사한 점이 있다. 텍스트 생산자, 즉 시인은 예상 또는 기대 밖의 어떤 대상이나 사상(event), 즉 문제 상태(problematic state)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시 텍스트의 화제(topic)로 삼는다. 생산자는 각별한 중간조정 과정을 활성화시킬 필요 없이 그 점검된 문제 상태, 즉 기대 밖의 대상이나 사상을 단순히 텍스트에 언급만 함으로써 자신의 통찰력(insight)을 스스로 확인하고, 여타 담화 참여자들, 즉 텍스트 수용자들이 자신과 유사한 확인을 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자신의 것과 비슷한 유형의 통찰력을 수용자들이 갖기를 의도한다. 이와 같은 생산자의 의도는 수용자들이 그 시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통상적인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텍스트 언어학에서 논의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인지적 화용론의 관점에서도 언급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 생산자의 독특한 통찰력에 의한 상황 점검 내용은 수용자에게는 일종의 신정보(new information)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신정보는 수용자의 인지 환경에서 충분히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s)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 텍스트가 전달하는 신정보는 통상 수용자가 갖고 있는 구정보(old information)와 관계가 있으면서¹¹⁾ 새로운 정보 항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제시된 김수영의 『풀』을 살펴봄으로써 생산자의 상황점검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맥락 효과를 논의해보자.

(3)

[1] 풀이 눕는다

[2]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3] 풀은 눕고

[4] 드디어 울었다

[5]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6] 다시 누웠다

[7] 풀이 눕는다

11) 인지적 화용론 이론의 틀에서는, 신정보라 하더라도 구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면 수용자의 맥락에 일정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상정한다.

- [8]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9]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10]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11]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 [12] 발목까지
- [13] 발밑까지 눕는다
- [14]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15]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16]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17]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18]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위 텍스트에서 생산자 또는 텍스트상의 화자는 자신의 통찰력으로써 풀의 상황 모델 (situation model)을 점검하고는 그것을 시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다. 제 1연, 즉 [1]-[6]에서 화자는 풀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기대 가능한 상정내용들(assumptions)을 제시한다. 바람에 나부껴 풀이 눕고, 바람에 부딪혀 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 등의 상정내용은 풀에 관한 전형적 지식(typical knowledge)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차 정보성을 전달하는 보통의 정보들이다. 따라서 화자는 [1]-[6]에서 담화 참여자들이 기준치(defaults)로서 기존에 지니고 있는 '풀'-프레임(frame)의 정보 항목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이는 2, 3연에서 제시되는 바 '풀'에 관한 생산자의 상황점검 내용과 대조되는 것들이다. 보통의 '풀'-프레임 속에 포함되는 정보 항목들은 무엇인가? 아주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겠지만, 본 항의 논의와 관계있는 것들로는, '미천하다', '흔하다', '특별한 가치가 없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회수되어 이루는 '풀'-프레임은 2, 3연에서 제시되는 바 화자의 각별한 상황점검에 의해 수정된다.

제 2, 3연, 즉 [7]-[18]에서도 '풀이 눕는다'는 상정내용은 회기(recurrence)되지만 [8]-[10], 그리고 [14]-[17]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그 풀은 이미 스스로 눕고 스스로 일어나는 풀로 점검되고 있다. 이는 '더 빨리', '먼저'와 같은 상황 증거(situational evidence)로 입증된다. 또한 [16]-[17]에서는 풀이 심지어 '웃는다'는 상정내용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7]-[18]에서 화자가 제시하는 이 상정내용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풀'-프레임의 수정을 뜻한다. '눕고', '일어나고', '울고', '웃는' 행위는 동작주(agent)가 스스로의 의도(intention)에 의해서 수행하는 행위들이다. '바람'이라는 외적 의도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피동 객체(affected entity)가 아닌, 하나의 당당한 주체로서의 '풀'이 수행하는 행위들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미천하고 흔하며 별 가치 없는 풀이지만, 화자는 풀의 상황 모델을 점검함으로써 풀에 관한 기대 밖의 사상(event)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풀이 '눕고', '일어나고', '울고', '웃는' 사상은 의의(sense)의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포함하는 것들이다.¹²⁾ 다시 말해서 화자는 이와 같이 결속성이 충족되지 않은 발화를 통해서 텍스트 수용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 과정을 활성화(activation)시키도록 만들고, 수용자가 문제-해결에 성공했을 때, 풀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텍스트 수용자가 풀에 관해서 지니게 되는 새로운 통찰력은 곧 '풀'-프레임의 수정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하면, 앞서 열거한 바 '미천하다', '흔하다', '특별한 가치가 없다' 등의 항목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동작주다', '스스로의 의도를 지닌다' 등의 항목이 부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항목들이 부가됨으로써 '풀과 같이 미천하고 흔한 존재들도 스스로의 의지와 의도가 있는 동작주이므로, 그 나름대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맥락적 함축(contextual implications)까지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함축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지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텍스트 생산자의 상황 점검에 의해서 수용자의 맥락에 일정한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s)가 일어났다는 점을 뜻한다. 풀이 하나의 동작주로서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신정보(new information)다. 이 신정보는 기존의 '풀'-프레임을 구성하는 구정보들과 상호작용하여 앞서 언급한 맥락적 함축(contextual implication)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미 그 신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는 수용자가 있다면 그에게 이 신정보는 자신의 배경 지식, 즉 구정보에 관한 증거(evidence)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구정보를 강화(strengthening)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¹³⁾ 이와 대조적으로, 풀에 관한 통상적인 지식만을 지니고 있는 수용자라면 그에게 시 텍스트 『풀』이 제시하는 신정보는 자신의 구정보에 대해 반대 증거(counter-evidence)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구정보를 기각(abandonment)하는 맥락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까지 논의한 이 맥락 효과의 세 유형은 바로 인지적 화용론에서 발전시킨 맥락 효과들이다. 그렇다면 결국 텍스트 언어학에서 전개한 상황성(situationality)의 한 분석 도구, 즉 상황점검(situation monitoring)이 텍스트 수용자에게 미치는 시적 효과가, 인지적 화용론이 발전시킨 맥락 효과(contextual effects)의 세 유형이라는 심리학적 기제에 의해서 설명된 셈이다.

VI. 텍스트 인유와 맥락 효과

텍스트 인유(text allusion)의 문제는 상호텍스트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논제다.

12) 이는 동물의 행위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눕다',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식물인 풀과 연결시켜 놓았고, 심지어 사람의 행위인 '울다', '웃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했기 때문이다.

13) 다시 말해서, 시인과 같이 풀이 자유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의 존재라는 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용자가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풀』을 수용하는 과정은 자신의 구정보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보그란데와 드레슬러는 원래의 텍스트와 그것을 인유하는 후속 텍스트 간에 대치성 관계 (alternativity relation)가 강화 또는 수정됨으로써 시적 효과가 생긴다고 논의한다. 인지적 화용론, 즉 적합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의 틀에서는 이런 종류의 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즉, 텍스트 수용자는 잘 알려진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얼마간의 상정 내용 및 일정한 원리 또는 대치성 관계를 습득한다. 이들 상정내용, 원리 및 대치성 관계는 그 수용자의 인지 환경의 일부를 형성한다. 그 수용자가, 원래 텍스트를 인유했으되 다른 원리나 대치성 관계로 인유한 후속 텍스트를 수용하게 되면, 후속 텍스트가 전달하는 바 다른 원리와 대치성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상정내용들은 그 수용자의 인지 환경을 수정하게 된다. 새로 부가된 상정내용은 인지 환경의 구정보에 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구정보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구정보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구정보를 기각시킬 수도 있으며, 구정보를 추론의 전제로 삼아 맥락적 함축을 낳을 수도 있다. 한국 현대시 텍스트의 예를 살펴보자.

(4)

[1]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았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넘어 산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넘어서 밤 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이글 애원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2]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3]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5)

[1] 해야 뜨지 마라 해야 뜨지 마라

[2] 동해 불끈 친 둥근 해야 뜨지 마라

[3] 니 떠올라 천지에 빛 환하면

[4] 죄 많은 우리 삶 어이해

[5] 한 많은 우리 땅 어이해

[6] 설움 많은 우리 지붕 어이해

[7] 부끄럽다 둥근 해야 서럽다 둥근 해야

[8] 이 땅에 이 어둠 한오백 년 폭 익고 나면

[9] 니 없이 못 사는 법 알고 또 알리니

[10] 해야 그때사 돌아오르거라

[11] 구천에나 갔던 듯 솟아오르거라

텍스트 (4)는 잘 알려진 박두진의 『해』의 일부이며, (5)는 고정희의 『청산별곡』이다. 『해』를 읽은 한국인 독자들이라면 이 텍스트로부터 최소한 얼마간의 상정내용을 인지 환경 속에 지니고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은 보통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텍스트상의 화자는 해에게 뜨라고 말한다. 그는 신선하고 예쁜 얼굴을 가진 해를 가능한 한 빨리 보고 싶어한다. 그는 달밤이 싫기 때문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에게 있어서 달밤은 눈물과도 같은 골짜기이며, 달밤의 뜰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달밤을 싫어한다. 그는 해가 빛나는 청산을 좋아한다. 그는 홀로 남겨진다 해도 해가 떠 있는 청산을 좋아한다.' 이러한 상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4)에 나타난 청산의 이미지는 희망적이고, 밝으며, 긍정적인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산에 관해서 이와 같은 상정내용들을 마음 속에 지니고 있던 수용자에게 텍스트 (5)가 미치는 맥락 효과는 무엇인가? 텍스트 (5)는 사뭇 다른 청산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텍스트상의 화자는 해에게 뜨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해가 떠서 환히 비춤으로써 청산을 뒤덮고 있는 인간의 죄, 한, 설움, 부끄러움 등을 밝혀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오랜 어둠의 세월이 지나고, 해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간들이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마치 구천에나 갔다온 듯 떠오르라고 화자는 기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공간에 이미 들어 있던 청산의 개념에 관한 백과사전적 항목들 또는 그 속에서 활성화되는 '청산'-프레임(frame)은 (5)를 수용한 결과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텍스트 (5)에 나타난 청산의 백과사전적 지식 항목들의 성향은 희망적이거나 밝지 않으며,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다. 그 청산은 죄, 한, 설움, 부끄러움으로 가득찬, 말하자면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청산인 것이다.

텍스트 (4)로부터 청산에 관해서 밝고 긍정적인 상정내용들을 기준치로서 습득했던 수용자는 (5)를 감상함으로써 청산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인지 환경을 수정하는 인지적 처리 절차를 활성화하게 된다. 수용자의 인지 환경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첫째, 텍스트 (5)로부터 얻어진 청산에 관한 새로운 상정내용들(신정보)이 (4)로부터 얻어진 청산에 관한 구정보들과 상호작용하여 맥락적 함축을 낳는 경우이고, 둘째, 청산에 관한 신정보가 구정보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구정보를 기각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쪽의 처리 과정을 수용자가 거치는가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¹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생산자의 텍스트 인유 과정에 의해서 수용자의 인지 환경이 수정된다는 것이다. 즉, 텍스트 인유의 결과로, 맥락 효과, 다시 말하면 시적 효과가 창출된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에서 규명해놓은 텍스트적 통화 장치들이 맥락 효과를 달성하는 방식에 관해서 인지적 화용론 이론의 틀이 인지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예는 맥락의 확장과 관련된 정보성의 격상 과정인데, 격상 또는 격하 과정에 의해서 시적 효과가 달성되는 이유는, 텍스트 발화체 전반의 정보성 단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

14) 가령 수용자의 정보 처리 성향, 배경 지식, 감정적 상태, 인생관 등이다.

해서¹⁵⁾ 텍스트 수용자의 맥락이 확장 또는 수정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예는 약성 함축의미를 낳는 결속구조적 장치의 사용인데, 본고에서는 대용형의 사용을 예로 들었다. 보통의 구조와 다르게 때로는 일탈적인 표층 텍스트 형상은 텍스트 수용자로 하여금 많은 약성 함축의미들을 처리하게 만들며, 시적 효과는 바로 이러한 인지적 과정 자체로부터 발생한다. 세번째 예는 텍스트상에 표현된 생산자의 상황점검 내용이 수용자의 맥락에 미치는 시적 효과의 사례다. 특정 대상이나 사상에 대한 생산자의 각별한 상황점검 내용은 수용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구정보와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맥락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인지적 화용론에서 개진한 바 맥락 효과의 세 유형, 즉 맥락적 함축의 창출, 구정보의 강화, 구정보의 기각 중에서 하나의 과정이 수행될 것이고, 이는 곧 시적 효과를 낳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네번째 예인 텍스트 인유는 시적 효과를 생산하는 상호텍스트성의 사례다. 텍스트 인유 과정이 시적 효과를 일으키는 이유는 인지적 화용론에서 발전시킨 맥락 효과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잘 알려진 텍스트 또는 앞서 수용했던 텍스트로부터 얻어진 구정보와 현재 처리하고 있는 텍스트의 신정보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맥락적 함축의 창출, 구정보의 강화, 구정보의 기각 등의 맥락 효과가 일어나고 이는 곧 시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VII. 화용론 및 문학 이론과 관련된 함축

본고에서는 담화·텍스트 언어학 및 인지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시 텍스트에 의해 통화되는 맥락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로, 맥락 효과는 독자가 주어진 텍스트를 정보 처리하는 인지적 절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절차적 접근 방식(procedural approach)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맥락 효과 또는 시적 효과란 자신의 의도에 관한 직시적 증거(ostensive evidence)를 생산하는 화자의 인지적 조작 절차, 그리고 그 증거 및 맥락 정보(contextual information)를 처리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복원(recovery)하는 청자의 인지 절차에 의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시 텍스트에는 다양한 인지적 책략(strategies)과 조작 절차(operational procedures)들이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적 효과를 일으키는 특정한 인지적 요소를 낱낱이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났듯이 텍스트 언어학 및 인지적 화용론은 시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효과적, 효율적이며, 따라서 적절한 이론의 틀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인간 언어적 의사소통 유형들이 이들 이론의 틀에 의해서 분석이 가능하며 잘 기술, 설명되리라는 점을 함축하는 것이다. 또한 시 텍스트의 맥락 효과의 인지적 기제(cognitive mechanism)가 텍스트 언어학의 분석 장치들에 의해서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즉, 정보성의 격상 및 격하, 각별한 결속 구조의 사용 및 그 수용 과정, 작가

15) 이는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정보성 단계를 2차 정보성 단계로 조정한다는 뜻이다.

의 상황점검과 상황관리 과정에 의한 전국적 인지 패턴의 활성화 및 수정 등의 인지적 절차를 통해서 독자의 맥락이 수정, 확장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 나타났다. 텍스트 언어학의 관점으로 시 텍스트를 분석하여 규명된 이러한 종류의 효과들은 적합성 원리를 바탕으로 한 인지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그 심리적 근거를 부여받게 된다. 결국 텍스트 언어학과 인지적 화용론은 시적 효과를 기술, 규명, 설명하는 데 상호 협동하는 셈인 것이다.

시적 효과의 일부가 은유(metaphor)와 상징(symbol) 과정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텍스트 언어학과 인지적 화용론의 이론적 틀도 이들 현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수정,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후속 연구에 의해서 보완된다면 본고에서 채택한 화용론의 두 이론의 틀은 문학 화용론(literary pragmatics)이라는 새로운 이론의 틀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시를 해석하는 일은 주로 비평가나 연구자들의 직관에 의존해 왔으므로, 동일한 시 텍스트에 대한 해석 내용 및 결과가 연구자에 따라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았다. 시 연구자들은 주로 시 텍스트 자체에만 주목하고 그 기저에 깔린 인지적 처리 절차를 도외시켰기 때문에, 만약 텍스트 자체만으로 분석이 어려우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 텍스트와 관계가 없는 여타의 내용을 끌어들어서 분석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 배경, 작가의 성향, 그 작가의 여타 작품들의 특성 등, 사실상 언어과학적 관점에서는 원용할 근거가 비교적 불충분한 내용들을 끌어다 넣고 연구자 자신의 '느낌'을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 텍스트를 인지적 화용론 및 텍스트 언어학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연구자들은 특정 시 텍스트로부터 왜 자신이 특정한 느낌을 받게 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의 언어 자료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 언어 자료가 생산된 의도, 그 자료를 처리하는 데 개재하는 인지적 효과, 독자들의 인지적 역할 등을 파헤쳐 종합해 보면 그 시 텍스트의 시적 효과의 실체를 간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해서, 인지과학 분야로서의 텍스트 언어학과 인지적 화용론이 실제 인간 의사소통의 기제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의 틀이라는 점, 그리고 시를 해석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 또한 입증되었기를 희망한다.

VIII. 참고 문헌

1. Beaugrande, R. de & Dressler, W.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1981.
2. Sperber, D. & Wilson, D.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86.